

결혼이주여성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문 미*, 송선희**

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Effec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al-Leisure Activities on Their Preparation Perception for Their Later Life in Choongchungnam-Do

Mi Moon*, Sun-Hee Song**

Dept. of Social Work For the Elderly,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hD*,
Dept. of Liberal Arts,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자료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3년 충청남도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 355명으로부터 수집하였으며, 분석은 SPSS 18.0프로그램과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노후준비의식은 여가활동이 많고 사회활동이 많으며 노후에 대한 생각과 노후계획을 많이 할수록 높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노후준비의식은 여가활동이 많고 노후계획 준비를 많이 할수록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의식은 사회활동이 많고 노후계획 준비를 많이 할수록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의식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입안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결혼이주여성, 노후생활인식, 사회활동, 여가활동, 노후준비의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effects of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ir preparation perception for their later life. We used data from 355 married female immigrants, residing in or nearby, Choongchungnam-do, Korea in 2013. Regression analysis and SPSS 18.0 were conducted to prove the hypotheses.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having more activities on leisure and social life and more planning on later life constitute critical factors for higher emotional, physical, and economical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Here we discussed strategies in planning social welfare policy for married female immigrants by providing basic information.

Key Words : married female immigrant, consciousness of later life, social activities, leisure activities,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Received 7 April 2014, Revised 7 May 2014

Accepted 20 July 2014

Corresponding Author: Sun-Hee Song(Dept. of Liberal Arts,
Hoseo University, Professor)

Email: shsong@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결혼이주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 법 제2조와 국적법 제4조에 근거하여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 여성이다.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단일 민족 국가였던 한국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는 다문화 가족 266,547가구, 결혼이주여성, 귀화자 등 283,224명(여성226,084명, 남성57,140명), 만9-24세 자녀66,536명(여성 32,655명, 남성33,882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1]. 김영란(2013)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2013, 9월 말 기준)을 보면 1,584,524명 중 결혼 이민자는 49.4%, 외국인 인력 34.4%, 유학생 5.5%, 기타 9.5%를 차지하고 있다[2]. 이무영, 박수선(2013)은 충청 남도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결혼이주여성의 비율 0.53%로 전국 1위이고, 인원수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았으며, 출신국은 중국이 46.9%, 베트남 29.8%, 필리핀 10.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인구비율이 2013년 12.2%, 2020년 15.7%, 2030년 24.3%, 2040년 32.3%로 추정 된다[1]. 급격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결혼이주여성들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노후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은 시부모와의 갈등, 남편과의 나이차이, 식습관과 문화 차이, 학력 차이, 본국으로의 송금 문제로 인한 경제적 갈등, 언어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안고 있다. 부족한 정보력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하여 결혼이주여성들은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후대책에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노년기생활과 관련하여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 문제, 노인부양문제, 건강문제, 심리사회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현재의 사회복지제도도 경제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4]. 이와 같이 경제적 생활의 불안정과 늘어나는 이혼율로 인하여 자녀양육의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생활 준비 여부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은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생활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먼저 사회활동이란 다른 사람과 상호교류와 관련된 형태를 띤 활동으로 일정한 규칙과 기본적인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4]. 사회활동은 노년기에 있어서 심리적인 안녕과 만족을 가져올 수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 자본을 생산한다. 남기민, 박현주(2010)[5]. Rowe와 Kahn(1997)[6]은 사회활동이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자아 존중감을 높여주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다. 권중돈(2010)[7]. Bowling(2010)[8]은 사회적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하려면 노후 소득준비, 사회 관계망 유지, 사회활동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최성재 · 장인협[9]은 여가를 의무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닌 스스로 선택해 자유, 평화를 느끼는 활동이라 정의 하였다. 남은 시간에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가(leisure)는 성취의식의 고양, 지적 심미성추구, 대인관계의 개선, 고독 및 자율성의 확보, 자기표현과 자아실현, 봉사, 보상, 안정성 등의 심리적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10]. 또한 일상적인 삶을 건설적이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 자아실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적 발전과 동시에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11]. 여가활동은 노년기에 있어 정서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 시켜 주고 생활 하는데 있어 만족감을 주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큰 영향력을 준다고 할 수 있다[12].

여기서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순돌 · 이현희(2012)[13]는 일반적으로 성별, 교육수준, 배우자유무, 경제상태, 건강상태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자녀와의 정서적인 관계만족도는 노년기에 일어나는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고 적절하게 대처 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14]. 성공적인 노화에는 심리적 안녕 감, 긍정적 적응, 노년기 삶의 질 등 노년기 생활만족으로 보아 왔다[15].

결혼이주여성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미래를 대비한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성공적이고 행복한 노년기의 삶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노후생활에 있어 시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의 노년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 인식 특성은 어떠한가?
-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 노후생활 인식,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정서적 노후준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 노후생활 인식,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신체적 노후준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 넷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특성, 노후생활 인식,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경제적 노후준비의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로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언어소통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주여성과 집에서 생활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었다. 다문화센터에서 공부하는 대상은 한국어선생님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은 부모교육, 자녀교육, 한국어교육을 위해 집으로 방문하는 선생님들의 충분한 설명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참여자들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는 2013년 3월28일부터 2013년 7월20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370부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된 15부를 제외하고 355부가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의 개인 특성은 다음<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출신국은 7개국 이상으로 베트남, 일본, 중국, 필리핀, 몽골의 순이었다. 연령은 35세 이하가 65.1%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았다. 배우자와의 연령 차이는 10년 미만이 41.3% 이상이 58.7%이었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 각각 20%이상이었다. 결혼기간은 2년 이상이 82.3%로 나타났고 결혼경로는 중개업체가 40.8%, 종교단체(스스로, 친구, 기타 포함) 38.3%, 가족 또는 친인척 20.8%였다. 결혼동기는 경제적인 이유가 53.2%로 조사되었고 자녀는 95.3%가 1명 이상을 두고 있었다. 가족의 구성형태는 남편과 자녀와 함께 사는 유형이 65.1%로 대다수였고 직업은 단순노무직 24.2%, 판매/서비스직 23.1%, 기타 20.0%이었으며 남편의 학력은 고등교육(고등학교 이상)이수가 80.3%였다. 월평균 수입은 300만 원 이하가 89%이었다.

<Table 1>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lassification	Frequency	%	
Country of origin	China	61	17.2
	Vietnam	113	31.8
	Philippines	48	13.5
	Japan	71	20.0
	Mongolia / Thai / Uzbekistan / Other	62	17.5
	Total	355	100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0 ~4years	51	14.4
	5 ~ 9 years	95	26.9
	10 ~14 years	126	35.7
	15 ~19 years	49	13.9
	20 years and more	32	9.1
Total	353	100	
Marriage duration	2 years	63	17.7
	Less than 2-5 years	119	33.5
	Less than 5-8 years	93	26.2
	Over 8 years	80	22.5
Total	355	100.0	
Marriage motivation	I want to live in those nations	153	43.1
	I love my husband and	100	28.2
	Religious reasons	64	18.0
	For economic independence	38	10.7
	Total	355	100
Family structure	Parents-(ex-husband married brothers and sisters / ex-spouse child / other included)	15	4.2

Classification		Frequency	%
	Husband	31	8.7
	Husband-child	231	65.1
	Parents-children-husband	78	22.0
	Total	355	100
Education of husband	Completion of basic education	70	19.7
	Completion of higher education	285	80.3
	Total	305	100.0
Education of wife	School	75	21.1
	Middle School	94	26.5
	High School	102	28.7
	University	84	23.7
	Total	355	100
Wedding channel	Agencies	145	40.8
	Family or relatives	74	20.8
	Religious groups (self, friend, etc. included)	136	38.3
	Total	355	100
Number of children	No	22	6.2
	1 person	176	49.9
	2 people	108	30.6
	3 or more	47	13.3
	Total	353	100
Occupational status	Simple labor job	86	24.2
	Sales, service jobs	82	23.1
	Officers, officials	39	11.0
	Manager, professional, business	44	12.4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33	9.3
	Etc.	71	20.0
Monthly income	1,000,000 won	27	7.6
	1,010,000 to 1,500,000 won	28	7.9
	From 1,510,000 To 2,000,000 won	99	27.9
	2,010,000 to 3,000,000 won	162	45.6
	More than 3.01 million won	39	11.0
	Total	355	100

2.2 조사도구

2.2.1 사회활동

사회활동척도는 Weiss(1974)[16]의 사회 참여척도를

김수현(1987)[17]이 수정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활동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저 그렇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활동 정도가 활발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활동의 신뢰도의 인식은 .809로 나타났다.

2.2.2 여가활동

여가활동에 관한 문항은 유인순(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18]. 이 척도는 여가활동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저 그렇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여가활동의 신뢰도 인식은 .720으로 나타났다.

2.2.3 노후준비의식(preparation perception of later life)

노후준비의식의 문항은 손희란(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사용하였다[19]. 이 척도는 정서적 준비의식 9문항, 신체적 준비의식 9문항, 경제적 준비의식 7문항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의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노후준비의식의 신뢰도는 신체적 준비의식 .725, 정서적 준비의식 .653, 경제적 준비의식은 .796으로 나타났다.

2.2.4 노후생활인식(consciousness of later life)

노후생활인식 척도는 손희란(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다[19]. 노후생활인식의 문항은 노년기를 맞이하는 시기, 자신의 노년기에 대한 생각, 노후계획 정도, 노후생활준비시기, 노후 생활의 어려운 부분,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노후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 노후 부양에 대한 생각, 노년기 본국으로 귀국 여부, 미래의 삶의 질 등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노후계획 정도,

노후생활준비 시기에 대한 문항은 낮을수록 인식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는 역 코딩 문항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연구 대상의 개인 특성과 노후생활인식은 빈도분석으로 산출하였으며,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의 특성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노년기라 인식하는 연령은 60세가 52.7%, 65세부터가 27.3%, 70세부터가 9.6%였다.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는 40대가 57.7%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 34.8%였다. 노후계획은 되어있지 않다가 63.1%였고, 노후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48.2%로 가장 많았다.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으로는 부부만이 72.7%로 가장 많았고 노년기의 어려운 점은 경제문제가 62.8%였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건강문제 67.0%, 경제문제 25.6%, 대인관계 7.4%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삶의 생각은 희망적이다가 47.9%, 변함이 없다가 28.5%, 불안 하다가 23.6%였다. 노년이 되어 귀국 한다가 23.1%, 귀국하지 않는다가 76.9%였다.

<Table 2> consciousness characteristics of later life

Variables & Classification		Frequency	%
consciousness age of later life	Over 55 years old	37	10.4
	Over 60 years old	187	52.7
	Over 65 years old	97	27.3
	Over 70 years old	34	9.6
	Total	355	100.0
Attitude to later life	Positive	123	34.8
	Normal	172	48.7
	Negative	58	16.4
	Total	353	100.0

Variables & Classification		Frequency	%
Who must care the elderly	Children	37	10.4
	The elderly themselves	76	21.4
	Children only when Parents cannot afford	71	20.0
	Community or nation	171	48.2
	Total	355	100.0
Difficulties of later life	Economic issues	223	62.8
	Health problems	110	31.0
	Alienation and loneliness / child issues	22	6.2
	Total	355	100.0
Future life	Hopeful	168	47.9
	Unchanged	100	28.5
	Unstable	83	23.6
	Total	351	100.0
Preparation time for later life	20s	12	3.4
	30s	79	22.3
	40s	205	57.7
	50s	39	11.0
	60s	20	5.6
	Total	355	100.0
Preparation for later life	Well prepared	27	7.6
	Normal	104	29.3
	Not prepared	224	63.1
	Total	355	100.0
Person you want to live Together	Only a couple	258	72.7
	Children	81	22.8
	Relatives	16	4.5
	Total	355	100.0
Most important thing to the elderly	Health	238	67.0
	Economy	91	25.6
	Relation with others	26	7.4
	Total	355	100.0
Intention to return to homeland	No	273	76.9
	Yes	82	23.1
	Total	355	100.0

3.2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의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의 관계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준비의식과 사회활동, 여가활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정서적 준비는 사회활동, 여가활동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사회활동, 여가활동은 중간수준의 상관이 나타났다.

신체적 준비는 사회활동, 여가활동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경제적 준비는 사회활동, 여가활동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중간수준이하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female immigrant's preception of preparing their later life and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Variables	Emotional preparation	Physical preparation	Financial preparation	Social Activity	Leisure Activity
Emotional preparation	1				
Physical preparation	.504***	1			
Financial Preparation	.327***	.412***	1		
Social Activities	.302***	.149**	.258***	1	
Leisure Activities	.390***	.255***	.143**	.361**	1

p<.01, *p<.001

3.3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정서적 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생활준비 중 정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4> 와 같이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절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은 1.816로 정상범위 1-4 이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 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1.440-31.195, 0.000-0.045,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04-0.089로 정상범위 값을 가졌다.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810-.980, 그리고 상승변량(VIF)은 1.020-1.235로 각각 정상범위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준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은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모델로 확인되었다.

투입한 독립변인이 정서적 준비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25.8%였고, 통제변인인 특성변인과 노후생활인식을 제외한 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14.6%의 R² 변화량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 하였으므로 모형3을 중심으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노후에 대한 생각, 노후 계획 준비,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이 중 여가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준비는 여가활동이 많고 사회활동이 많으며 자신의 노년기에 대한 생각 노후계획준비를 많이 할수록 높았다.

<Table 4>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o-leisure activities on the emotional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Independent variables		Emotional Preparation Perception		
		Model1 B(β)	Model2 B(β)	Model3 B(β)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009(.027)	.001(.003)	-.007(-.022)
	Duration of marriage	.020(.055)	.017(.046)	.022(.058)
	Monthly income	.077(.211)***	.063(.172)**	.029(.079)
consciousness of later life	Think about your own later life		-.072(-.130)*	-.076(-.137)**
	Retirement plan preparation		-.109(-.180)**	-.099(-.164)**
	Retirement preparation time		-.017(-.037)	-.016(-.033)
Social activities				.173(.192)***
Leisure activities				.300(.283)***
F		6.003**	7.232***	14.857***
R ² Change		.049	.063	.146
R ²		.049	.112	.258

3.4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신체적 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생활준비 중 신체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절차의 독립성을 파악하는 Durbin-Watson은 2.022로 정상범위 1-4 이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 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1.440-31.195, 0.000-0.033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 0.004-0.089로 정상범위 값을 가졌으며, 다중 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Tolerance)는 .810-.980, 그리고 상승변량(VIF)은 1.020-1.235로 각각 정상범위 1 이하와 1-9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준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기본가정을 충족하는 모델로 확인되었다. 투입한 독립변인이 신체적 준비에 대한 전체 설명량은 13.9%였고, 통제변인인 개인특성변인과 노후생활인식을 제외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변인의 전체 설명량은 3.1%의 R² 변화량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 하였으므로 모형 3을 중심으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결혼생활기간, 노후계획준비, 여가활동이 유의

미한 영향을 주었고 이 중 여가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준비의식은 여가활동이 많고, 노후계획 준비를 많이 하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o-leisure activities on the physical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Independent variables		Physical Preparation Perception		
		Model1 B(β)	Model2 B(β)	Model3 B(β)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027(.074)	.013(.036)	.009(.024)
	Duration of marriage	-.050(-.125)*	-.061(-.151)**	-.058(-.143)**
	Monthly income	.023(.059)	.010(.024)	-.012(-.031)
Recognized retirement	old age		.027(.045)	.023(.038)
	Retirement plan preparation		-.185(-.283)***	-.176(-.269)***
	Retirement preparation time		-.016(-.032)	-.015(-.029)
Social Activities				.086(.088)
Leisure Activities				.215(.188)**
F		3.840*	6.924***	8.071***
R ² Change		.032	.076	.031
R ²		.032	.108	.139

*p<.05, **p<.01, ***p<.001

3.5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경제적 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생활준비 중 경제적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잔 차의 독립성을 파악해 Durbin-Watson은 1.866로 정상범위 1-4 이내의 값을 가지며, 극단 치를 파악하는 Mahalanobis와 Cook의 거리는 각각 1.440-31.195, 0.000-0.030, 그리고 중심화된 Leverage 값은0.004-0.089로 정상범위 값을 가졌으며, 다중공선성을 파악하는 공차한계는 .810-.980 그리고 상승 변량(VIF)은 1.020-1.235로 각각 정상범위 1 이하와 1-9

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결석은 기본가정을 충족하는 모델로 확인되었다. 투입한 독립변인이 경제적 준비의식에 대한 전체 설명 량은 14.8%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준비의식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이었고, 통제변인인 개인특성변인과 노후생활인식을 제외한 사회활동과 여가활동 변인의 전체 설명 량은6.4%의 R² 변화량을 보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이 충족 하였으므로 모형3을 중심으로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노후계획준비, 사회활동이 영향을 주었고, 사회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준비의식에는 사회활동이 많고 노후계획준비를 많이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Married female immigrants' consciousness of later life and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on the financial preparation perception for later life

Independent variables		Economical Preparation Perception		
		Model1 B(β)	Model2 B(β)	Model3 B(β)
Personal Characteristics	Age difference between spouses	.027(.063)	.013(.030)	.001(.002)
	Duration of marriage	-.008(-.017)	-.019(-.041)	-.018(-.039)
	Monthly income	.057(.123)*	.046(.101)	.029(.062)
Recognized retirement	old age		.034(.049)	.044(.063)
	Retirement plan preparation		-.185(-.243)***	-.200(-.262)***
	Retirement preparation time		-.039(-.066)	-.042(-.072)
Social Activities				.297(.261)***
Leisure Activities				-.004(-.003)
F		2.560	5.234***	7.439***
R ² Change		.022	.062	.064
R ²		.022	.084	.148

*p<.05, **p<.01, ***p<.0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생활인식과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탐구하는데 있었다. 연구결과 주요발견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생활 인식 특성에 있어 60세부터가 노년이며, 부양방법은 국가나 사회가 실시하며 노년기에 대한 걱정은 경제문제, 미래에 대한 생각은 희망적으로 나타

났다. 또한 40대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로 인식했으며, 노후계획의 준비정도는 “되어 있지 않다”가 63.1%였으며,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부부만,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노년기에 자국으로 귀국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아니오”가 76.9%였다.

둘째, 정서적 노후준비의식에 대해서 노후에 대한 생각, 노후계획준비, 사회활동, 여가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중 여가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주어 결혼이주여성의 정서적 준비의식에는 여가활동이 많고 사회활동이 많으며 노후에 대한 생각과 노후의 계획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체적 노후준비의식에 있어 결혼생활기간, 노후계획준비, 여가활동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적 준비의식에는 여가활동이 많고 노후계획준비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노후준비의식에 있어 노후계획 준비, 노후생활준비 시기, 사회활동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준비는 사회활동이 많고 노후계획준비를 많이 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결혼이주여성들의 노후준비의식에는 사회활동과 여가활동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에 현재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정책에는 사회활동 여가활동 등은 뒷전으로 밀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의 노후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노후준비 지원을 도모할 대안 마련과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노후대책이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므로, 앞으로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는 문화 풍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 훈련,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자조모임의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활동, 노후준비에 관한 컨설팅,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 내지 확대 해 나아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초 고령화 사회의 예비 노인으로 노년기를 준비해야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있어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노년기의 삶은 달라질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리라는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노후생활인식 및 사회

활동 여가활동이 노후준비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므로, 후속과제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노후의 삶을 위하여 젊었을 때 미리 준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다문화 정책의 속도가 가족 및 사회의 변화 속도를 도입단계로 따라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주목하여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사회활동, 여가활동의 개발과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역 이민을 꿈꾸지 않고 함께 공유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과 산간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사회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전문가들에 의해 생애 주기별 차별화된 정책이 연구 개발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본 연구는 충청남도 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인 결혼이주여성의 실태를 파악했다고 볼 수 없어 모집단의 편중화로 일반화하기에는 고충이 있었다.

REFERENCES

- [1] Bureau of Statistics, 2011 marriage statistics, 2011.
- [2] Young-Ran Kim, Multicultural society, korea : culture diversity and mutua lifel, pp. 11, 2013.
- [3] Mu-Young Lee, Soo-Sun Park, State of employment of multicultural program, pp. 30, 2013.
- [4] H. S. Park, Research on Relationship between the Preparation for the Old age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and their Successful Aging,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8, pp. 281-302, 2012.
- [5] G. M. Nam, H. J. Bak, The old man's participation in religious activities and social impact on life satisfac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anxiety around the death - the elderly study, 49, pp. 405-427, 2010.
- [6] Rowe, J. W. & Kahn, Successful Aging, NY: Dell

- Publishing. a Division of Random House, R. H, 1998.
- [7] Jung-Don Gwon, Theory of well-being of the elderly, Seoul; hakjisa, 2010.
- [8] Bowling, A, Enhancing later life: How older people perceive active ageing? Ageing and Mental Health, Vol. 12, No. 3, pp. 293-301, 2010.
- [9] Sung-Jae Choi, In-Heup Chang, Social Welfare for Older Persons in Aning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 [10] Sun-Hee Song, Myeong-Suk Choi, Sang-Mae Lee, Kyeong-Ju Seo, Hwa-Shik Lee, Mi Moon, Sang-hoon Choi, Chan-Yeol Yu, Ming-Koung Chu, Seung-Suk Kwon, Hyeong-Nam Moon, Euy-Jeong Jeong, Kyoung-Poon Ha, Suk-Hee Choi, Senior Education. Shin Jeong. 2011.
- [11] Sun-Hee Song, Seung-Suk Kwon, Sang-Mae Lee, Kyoung-Poon Ha, Ju-Yeong Jin, Sin-Seop Jong, Seong-Ok Gang, Mieong-Hwa Lee, Shin-Kee Kang, Yoon-Hee Kim, Ming-Koung Chu, Kyeong-Jo Seo, Seung-Hwan Choi, Suk-Ja Oh, An-Na Lee, Elderly Psychology. Shin Jeong. 2013.
- [12] San-Gsik Shin, The Effects of Elderly Leisure Activities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Ph. D. thesis, School of venture Hoseo. 2010.
- [13] S, D. Jeong, H, H. Yi,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haracteristics and Preparation for Later Life: A Comparison of Babyboomers and the Pre-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8, pp. 209-232, 2012.
- [14] I. S. Kwak, The Effect of the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on the Successful Lives of the Elderly, Korea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ol. 15, No. 4, 107-127, 2011.
- [15] Seong-Ok Gang, The Impacts of the middle aged'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nd Attitudes toward Older Persons on Preparation for Old Age, Ph.D. thesis, School of Venture Hoseo, 2013.
- [16] Weiss, R, S, The Provisions of social Relationship, Kubin, Z, Doing into other Prentice-Hall Englewood, N, J, 1974.
- [17] Soo-hyun Kim, City of Life Satisfaction and Related Factors in Elderly Study, Sleep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1987.
- [18] In-Sun Yu, Effects of the personality Traits, society Activity Leisure Activity of Baby Boomers on the preparation perception for the Old Age Ph.D. thesis, School of venture Hoseo, 2011.
- [19] Hui-Ran Son, A Study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and Marriage Satisfacton on the Perception of Preparing Thei Old Age, Ph.D thesis, School of venture Hoseo, 2011.

문 미(Moon, Mi)



- 2008년 2월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문학사)
- 2010년 8월 : 호서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실버산업학석사)
- 2013년 2월 : 호서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수료
- 2011년 3월 ~ 현재 :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강사

· 관심분야 : 노인교육, 노인심리, 건강가정
 · E-Mail : happymm8779@never.net

송 선희 (Song, Sun Hee)



- 1994년 2월 : 고려대학교(석사)
- 1999년 2월 : 고려대학교(교육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교육심리, 노인심리, 노인교육
- E-Mail : shsong@hoseo.edu